중세르네상스영문학
제14권 1호 (2006): 1-31

중세초기 기독교 여성연구: 라드군트에서 흐로츠비트까지*

김재현 (한국고등신학연구원)

I. 서론-어둠 속에서 찾은 진주

피터 브라운(Peter Brown)의 연구가 고대후기와 중세초기 기독교의 연구에 촉진제 역할을 했고, 콘스타블(Giles Constable)이 제시한 12세기 르네상스론은 중세기독교 연구가 스콜라주의 이전으로 급격히 확장해 가는 예를 보여 준다 (Peter Brown 참조; Giles Constable 참조). 지난 30여 년간의 중세 연구의 엄청난 확장은 연구 주제와 깊이의 증대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중세 전반에 대한 연구열을 증가시켰다. 중세 초기 기독교에 대한 연구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서방기독교의 토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카롤링거 기독교에 대한 점증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2004-037-A00027).

하는 관심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Bat-Sheva Albert 참조; Christian Bonnet 참조; Katrien Heene 참조).

그러나, 중세초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중세의 다른 영역에 비해 아직까지는 많은 조명을 받아오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고대 기독교사의 연구가 초대시기에서 그레고리 1세 시기까지(7세기) 왕성하게 이루어진 반면, 중세 중후반기에 대한 연구가 11세기 그레고리 7세와 안셀름 이후 기간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왔다. 메로빙거, 카롤링거, 오토제국 시기 기독교에 대한 연구는 이제야 학자들의 관심과 매혹을 끌고 있다.

중세초기 연구는 통합적인 중세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신교인은 자신들의 신학적 뿌리를 찾기 위해 4-5세기 어거스틴에서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사상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중세 학자들의 기독교 역사 서술 역시 그레고리 1세에게서 그레고리 7세로 뛰어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2천년 기독교 사상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중세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듯이, 보다 균형 잡힌 중세기독교 이해와 연구를 위해 쉽게 간과되는 중세초기에 대한 연구를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1] 중세초기에 대한 관심과 중세 기독교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필요는 필자가 이 글에서 연구주제로 삼고자 하는 중세초기 여성문헌 연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통용된다.

최근의 중세기독교 연구 붐의 가장 큰 수혜자요 촉매자 중 하나는 여성연구가의 증가와 여성관련 연구주제다. 인문학과 중세분야 내의 괄목할 만 한 여성연구자들의 등장은 그 동안 잊혀져 왔거나 무시당해 왔던 많은 중세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다. 20세기 후반 다양한 방법론의 발전, 중세

1) 힝크마르(Himcmar)와 라바누스(Rabanus)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에리우제나(Eriugena)와 13세기 스콜라사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다. 통합적인 기독교사상 이해와 함께, 초기중세는 가장 왕성했던 중세 중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예로서, 12-13세기 스콜라 사상에 등장하는 신학적 논쟁들이 이미 8-9세기의 카롤링거 기독교의 논의를 통해 광범위한 일차적 논의를 거쳤다. 다시 말해서, 9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는 "숨마"(*summa*)로 대변되는 중세성기 기독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와 포스트모던 시대를 잇고자 하는 학적 관심, 점증하는 중세 여성의 영성에 대한 관심은 중세기독교 연구에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더불어, 탄탄한 언어적 배경과 섬세한 본문 분석능력을 겸비한 여성 중세학자의 증가 역시 중세 연구에서 여성관련 분야를 확대시켰다.[2] 중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더 나아가 중세초기 기독교 여성들의 시각과 이해를 더해줌으로 보다 풍부한 중세기독교 이해를 도모해 왔다.

필자는 여기서 중세초기 학문과 보금자리 역할을 한 수도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네 명의 여성지도자의 삶과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네 명의 인물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첫째, 중세초기 기독교 형성과 전파에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 둘째, 수도원(수녀원)을 배경으로 개인과 집단의 종교적인 삶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했던 사람, 셋째, 자신의 활동과 작품에서 여성적 특징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중세초기라는 시기와 지역의 다양성, 북유럽을 중심으로 서방기독교 형성기를 비교적 균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명의 여성들을 선정했다—프랑스의 라드군트(Radegund, d.587), 영국의 힐다(Hilda, d.680), 영국과 독일을 잇는 르오바(Leoba, d.780), 그리고 독일의 흐로츠비트(Hrotsvit, d.973).

그레고리 1세의 등장 이래 중세초기 기독교의 우선적인 목적은 기독교의 북

---

2) 칼라마주(Kalamazoo) 중세국제학술대회에서 최근 10여년이 넘게 매년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어온 힐데가르트를 비롯한 중세 여성관련 논의들은 이를 잘 반증해 준다. 하지만, 지금껏 남성학자에 의해 주도된 중세기독교에 대한 연구와 남성들 위주의 중세 신학자 연구와 비교할 때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에반스가 편집한 책은 단 한명의 여성도 독립적인 장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G. R. Evans, ed., *Medieval Theologians* 참조). Francis Gies and Joseph Gies, *Women in the Middle Ages* (New York: Barnes & Noble, c1978), 3-59에서는 중세 여성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책에서 바로 이어지는 논문은 중세 여성의 종교적 삶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An Abbess: Hildegard of Bingen," 63-96. 그리고, Eileen Power, *Medieval Women*의 두 장을 보라 ("Medieval Ideas about Women," 9-34, "Nunneries," 89-99).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 책도 유용하다. M. Williams and A. Echols, "Naked Statues and Holy Bones," *Women in Middle Ages: Between Pit and Pedestal*, 103-116.

유럽지역으로 확장과 안정이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선교적 소명의 구체화, 신학적인 의제 설정과 정립, 실천적 모델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여성들은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았다. 여성들에게는 결혼과 함께 수도원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삶이 중심적인 출구였기 때문이다. 수녀원은 여성들에게 교육과 영성 생활을 보장해 준 가장 중요한 출구였다. 10세기 이전까지의 유럽의 학문발전에 수도원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듯이, 수도원의 출발점인 파코미우스(Pachomius) 때부터 시작된 수녀원이라는 여성종교 공동체는 중세초기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교육기관 이었다. 수녀원은 단순히 기독교 전통과 종교성을 고양시키는 통로만은 아니었다. 수도원을 배경으로 형성된 여성 문헌들은 여성들만이 지닌 특수한 종교성을 잘 드러내 주기도 했다. 여성들의 종교 사회적인 역할은 종종 남성들의 역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필자는 네 명의 여성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읽기와 분석,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 자료에 기초한 연구.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를 읽어내고 표현한 글을 일차적인 자료로 삼는 것은 이차적 자료나 해석에 의한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 준다. 둘째, 여성 자신들의 문헌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문헌이 갖는 문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살펴보려 한다. 문헌과 문학적 이해를 통해 현실과 이상사이의 간극과 문학적 기교를 동시에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 여성특유의 이해의 틀과 '여성성'에 대한 논의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셋째, 해석과 자리 매김. 이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필자는 기독교 신학적이고 사상사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겠다.

중세초기 여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지중해 기독교를 넘어 서방기독교가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피동적인 객체로 침묵만을 지키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영국을 포함한 북유럽 기독교의 형성기에 여성 기독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중세초기 기독교의 발전을 제대로 기술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중세초기 여성들이 여느 남성들에 뒤지지 않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좀더 적극적인 해석과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필자와 로렘(Paul Rorem)이 다른 연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중세기독교의 이해에 있어 "중세 여성신학자"라는 용어를 보다 깊이 있게 사용하고, 남성중심의 중세기독교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공헌과 기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Rorem 82-93; 김재현 「중세여성 신학자들」 21-41, 「악마로 이끄는 통로」 79-103).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아브라함과 에프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마리아는 마리-스텔라(Mari-stella)로서 보다 찬란한 빛을 통해 어두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Wilson 66-80).

II. 중세초기 기독교 여성 연구

II-a) 라드군트(Radegund)

기독교가 지중해를 넘어서 프랑스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는 마틴(Martin of Tours)과 목이 잘린 순교자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같은 남성들의 공헌도 지대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과 라드군트 같은 여성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페핀(Pepin)의 등장과 함께 프랑크 왕조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의 혼란스러운 프랑스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라드군트 같은 여성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라드군트는 무엇보다 주변의 폭력과 야만성에 대항하여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여성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 기독교가 프랑스 북쪽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3]

라드군트에 대한 일차적인 기록은 시인이자 주교였던 포르투나투스

3) 서던(R. W. Southern)도 라드군트와 힐다를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암흑시대를 빛낸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 보았다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309-310). 기독교 초기 6세기 동안의 여성 수도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위해 피터슨의 다음 글을 보라. John M. Peterson, "Feminine Monasticism in the First Six Christian Centuries: An Historical Introduction," *Handmaids of the Lord,* 15-38.

(Venantius Fortunatus, 530-609)가 남긴 시와 글, 『생애』(*Vita*)를 통해 얻을 수 있다.[4] 라드군트에 대한 기록은 당대 여느 여성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 587년 그녀가 죽은 후 기록된 『생애』는 라드군트의 금욕주의자이면서 영웅적이었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녀와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던 포르투나투스는 이런 의미에서 라드군트를 순교자의 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라드군트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그려내지는 않고 있다.

포르투나투스가 남긴 『생애』는 라드군트의 생애와 활동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 자료는 여성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하는 서문과 라드군트의 생애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여성을 통해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짧은 구절로 구성되었다. 생애를 다룬 본론 부분에서는 어린시절,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의 종교적인 삶, 선을 베푸는 것과 금욕적인 종교생활, 기적이야기로 구성되었다. 특히, 그녀의 생애는 약자와 필요를 느낀 자들에 대한 배려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종교적인 생활을 지키는 데서는 전문적인 수녀들보다 더 엄격했다.

라드군트의 생애를 간략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라인강과 엘베강 사이의 투링기아(Thuringia)의 왕족으로 태어난 라드군트는 일생동안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정치적인 정황가운데서 살아갔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삼촌의 손 안에서 자랐다. 531년 프랑크족 왕 클로타르에 의해 전리품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녀는 538년까지 비교적 조용한 피카르디 지역에서 자란 후에 클로타르의 아내가 되었다. 550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 클로타르에 의해 살해되자, 20대 후반이었던 그녀는 궁정을 떠났다. 550년 중반에 수도원을 세우고 종

4) 포르투나투스와 보도니비아(Baudonivia)가 기록한 『생애』의 믿을만한 영어본은 맥나마라의 것(McNamara, *Sainted Women of Dark Ages*, 70-105)과 피터슨의 것(Peterson, ed., *Handmaids of the Lord*, 381-428)이 있다. 이중에서 피터슨의 것은 정선된 각주를 담고 있어 보다 유용하다. 피터슨은 라드군트에 대한 그레고리의 글을 함께 담고 있다. Gregory of Tours, "The Death and Funeral of Radegund," 429-431. 그리고, Mary Ann Stouck, ed., *Medieval Saints: A Reader* (Peterborough, Ont.: Broadview Press, c1999), 205-221에는 포르투나투스의 글이 있다.

교에 전념했으며, 561년 이후 프와티에를 새로운 거주지로 삼아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다. 당대의 시대적 어려움을 반영이라도 하듯, 남편의 죽음 후에도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왕족과 귀족들의 투쟁가운데서 살아갔다. 늙어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종교공동체가 안전을 위해 관할구역의 주교인 그레고리(Gregory of Tours)에게 글을 써야 할 정도로 정치 종교적인 여건은 암울했다. 이런 와중에 그녀는 60대 후반인 587년 파란만장 한 생애를 마감했다(McNamara 63).[5] 포르투나투스는 라드군트가 가족을 잃은 것, 고향을 떠난 것, 일생동안 겪은 어려움을 『투링기아 전쟁』(*The Thuringian War*) 서문에서 절실히 그려내고 있다.

> 오 전쟁의 슬픈 상태여, 악의에 찬 운명이여,
> 그것이 자랑스러운 궁정을 갑작스레 무너지게 하였구나!
> 오랫동안 행복 하게 서 있던 지붕이 무너지고,
> 밑으로 떨어져 새까맣게 타버린 폐허가 되었다.
> 궁전의 정원은 한때 번성하였는데,
> 슬픔과 타오르는 재로 뒤 덮여 버렸구나. (McNamara 65)

포르투나투스의 『생애』에서 두드러진 것은 복음서의 가르침을 문자적일 정도로 실천하는 데서 볼 수 있다. 그녀는 특히, 게르마누스의 가르침을 존중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구제와 나병에 걸린 여인들과 포옹과 입맞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행했다. 이는 외형적 실천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수난절 내내 진행된 금식은 그녀를 거의 탈수상태로 빠뜨렸고, 세 개의 큰 철 고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체를 제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박해의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자신의 현실을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순교자로 만들려는 생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생애』에는 수많은 기적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녀의 축성과 축복자체가 기적을 불러

5) 왕족들의 투쟁 사이에 끼여, 프와티에가 불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당대 이 지역의 정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드군트 사후, 칠페릭(Chilperic)의 딸 바시나(Basina)로 인해 수녀원은 급격한 혼란에 처했다.

일으켰다. 그리고 남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도 강력한 기적은 일어났다.[6]

우리가 포르투나투스와 보도니비아가 기록한 생애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첫째, 포르투나투스는 라드군트의 남편 클로타르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화 시키면서 왕의 너그러움을 암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보도니비아는 세상의 왕과 천상의 왕 사이에 서 있는 라드군트의 애절한 모습을 보여준다. 보도니비아는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려는 클로타르 왕의 계획과 프와티에에서 수도원장의 권위에 복종하는 라드군트를 대조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클로타르 왕은 파리의 주교 게르마누스를 라드군트에게 보내 용서를 구했다. 둘째, 보도니비아는 라드군트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성인의 유골을 모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라드군트는 순교자 맘마스(Mammas)의 유골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사람을 보내기도 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구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투링기아에서 잡혀온 라드군트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은 기독교 공동체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벌써 기회가 오면 순교자가 될 것을 각오했고 남들에 대한 선행을 늘 베풀었다. 그러나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자신의 오빠가 죽자 종교인의 길로 접어들 것을 결심했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집사(deaconess)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 프와티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평화의 횃불을 들고자 했다. 수도원이라는 맥락을 놓고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은 라드군트의 종교적 삶은 수녀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녀가 수녀원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의 종교적 삶과 실천을 강화시켰지만, 이전의 삶과 대단한 간극을 보여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왕비요 수도원장이었던 라드군트의 활동을 기독교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첫째, 가장 큰 의미는 니케아 신조에 기초한 정통적인 신앙이 북

6) 당대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기적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포르트나투스의 『생애』의 39개의 소 항목 중에서 13개가 기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시대 기적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보라. Jo Ann McNamara, "A Legacy of Miracles: Hagiography and Nunneries in Merovingian Gaul," *Women of the Medieval World*, ed. J. Kirshner & S. F. Wempe, 36-52.

유럽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녀와 프와티에의 수도원은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는 점이다. 비록 명목적 측면이 강했지만, 클로비스(Clovis)의 개종은 정통 기독교의 확장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프랑스를 통해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탈리아 북부와 유럽남부에 만연하던 아리우스파 부류의 기독교와는 대조적으로 클로비스의 정통 기독교 수용은 북유럽과 로마 기독교를 이어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수 있다. 이는 중세초기 북유럽 기독교의 확장에 중요한 거점을 확보해 준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카롤링거 기독교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프와티에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종교적 평화를 간구했던 라드군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불안정한 정치 종교적 맥락에서 라드군트는 프와티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모델을 제공해 주었다. 『생애』에서 보았듯이, 본보기의 핵심은 라드군트 자신의 개인적인 성결성과 실천적인 삶이다. 개인적인 성결성과 수행을 통해 수도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수도원에 들어와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순교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지체부자유자와 나병환자들과 입을 맞추고 몸을 씻겨 주었다. 그녀의 삶은 철저하게 참회와 순교와 헌신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라드군트의 삶과 활동은 사막의 교부들과 고행자들의 수도생활과 매우 흡사하다. 정치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프랑스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수녀원을 매개로 해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종교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같이 그녀가 세운 수도원 모델은 남성 수도자들의 삶과 큰 차이가 없다. 그녀는 남성들과 유사한 종교 지도자적 기능을 그 사회와 교회에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포르투나투스와 같은 시인 겸 찬송가 작가와 『암흑시기의 거룩한 여인들』(*Sainted Women of the Dark Ages*)에 나오는 수많은 이들을 지원하고 종교적인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었던 점도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라드군트의 역할에 주목하게 만든다.

II-b) 힐다(Hilda)

라드군트가 프랑스 내 기독교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힐다는 영국 기독교의 초기 정착과 방향성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에서 서 있었다. 다만 자료의 빈약함이 힐다 연구에 대한 최대 걸림돌이다. 에켄슈타인(Eckenstein 95)의 지적과 같이 영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힐다가 지금까지 중요한 조명을 받지 못한 것도 힐다가 남긴 일차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힐다는 편지, 기도문, 찬송 같은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으며, 비드(Bede)의 책에 있는 증언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드가 다룬 20여명의 여성에서 힐다가 당연 돋보이고 있다(Bede, *History* 4.23).[7]

비드는 힐다가 죽은 후 50여년 후인 731년에 자신의 책을 완성했다. 비드는 힐다의 삶의 전반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첫째, 비드는 힐다의 어머니가 그녀를 임신했을 때의 꿈 이야기를 남겨주었다. 힐다의 어머니는 자신의 옷 아래서 매우 가치 있는 보석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까이 가서 보석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매우 밝은 빛을 내어서 모든 브리튼 사람들이 그 영광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다." 이는 물론 영국기독교 역사에서 힐다가 차지할 위상을 암시하는 것이다. 둘째, 그녀의 큰 삼촌인 왕 에드윈(Edwin)의 세례와 627년 부활절 때의 힐다의 집에 대한 이야기다. 14살이었던 힐다가 파울리누스(Paulinus)에 의해 집단적인 개종을 통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 속해 있었다고 비드는 기록했다. 이는 비로소 이 지역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거의 다 비드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라드군트의 경우와 같이 힐다의 활동반경은 왕족출신과 수도원문화를 배경

7)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힐다를 다룬 자료들은 많지 않다. 간단한 소개를 위해서는 C. Larrington, "The Life and Death of Abbess Hild," *Women and Writing in Medieval Europe*, 126-128을 보라. 비드가 힐다에 대하여 믿음직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는 많다. 예를 들어, 그가 『쿠쓰베르트의 삶』(*Life of Cuthbert*)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힐다의 후계자인 앨플레드(Aelffled)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독교를 노썸브리아에 가지고 온 파울리누스 주교, 기독교를 허락한 왕 에드윈, 이곳의 기독교를 로마식 기독교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윌프레드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 힐다는 교분을 갖고 있었다. 힐다는 초기 영국 수도원내의 교육을 강조하고 왕족 수녀원장으로서의 균형잡힌 역할을 했다. 그녀는 왕족출신으로 당대 학문의 중심지로 떠오르던 수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여성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힐다는 노썸브리아의 왕 에드윈의 사촌 헤레릭(Hereric)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627년에 파울리누스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다. 그녀는 에셀헤르(Ethelhere of East Anglia)와 결혼을 했지만, 647년에 수녀가 되었다. 조직과 행정에 능했던 그녀는 당대 중심인물인 에이단(St. Aidan)의 눈에 띄어 그가 지도하던 이중수도원에서 활동했다. 이후 그녀는 스트레안네스샬크(Streaneschlch) 수도원을 발전시켰는데, 이곳이 바로 유명한 휘트비(Whitby)이다.

그녀가 영국교회사에서 비드에게 분명한 인상을 남긴 것도 이러한 수도원적 배경 때문이었다. 비드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당대 영국 수도원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힐다는 휘트비에서 "천부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가진 힐다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했다. 힐다는 성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성경에 대한 연구, 직접적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휘트비 이중수도원의 지도력을 확보해갔다. 특별히 성경이해에 대한 그녀의 강조는 이 시기에 특이할 만하다. 남성공동체와 여성공동체가 같이 있던 이중수도원은 힐다의 지도력에 따라, 수도원적 이상을 추구할 장소와 교육적인 장소로 자리잡아갔다. 성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영적인 조언활동은 힐다의 또 다른 지도력을 의미했다. 이교도와 싸우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던 중요한 시기에 앵글로색슨 교회를 섬길 다섯 명 이상이 되는 주교가 그녀의 수도원에서 배출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힐다는 680년 61세의 나이로 죽었다.

비드가 수많은 여성 중에서 왜 힐다를 그처럼 강조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다의 이름과 664년 열린 휘트비 공의회(Synod of Whitby)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휘트비에서 열린 공의회

는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에 영국기독교의 운명을 켈트식이 아닌 로마식 기독교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공의회가 열린 곳의 지도자가 바로 힐다였으며, 이 공의회를 통해 우리는 힐다의 지도력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힐다가 지도자로 있던 곳에서 왕과 왕비, 귀족과 주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다. 힐다가 있던 휘트비 수도원이 남성들과 여성들의 동등성을 어디보다 더 강조하는 이 지역 최초의 이중수도원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권위를 동등하게 존중했고, 심지어 힐다는 중요한 남성들을 교육하기도 했다(Eckenstein 91).[8]

휘트비 기독교는 이방인의 기독교로의 개종, 켈트 식 기독교와 로마식 기독교 사이의 갈등과 조정이라는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이방인의 기독교로의 명목적이고 집단적 개종이 흥행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방 신에 대한 제단이 공존했고, 이방종교와 기독교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든 기적, 꿈, 표징들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기독교적인 자기 정체성과 모범적인 전례가 부족하던 상황에서, 휘트비 회의는 부활절 날짜의 산정, 승려삭발의 적절한 관습, 의복착용 등을 포함한 중요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러한 논의는 켈트와 로마기독교의 방법 중에서 영국기독교가 어떠한 전통과 해석을 따를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었다. 이는 나아가 게르만 족의 침입이후 양분된 지리적 특징과 함께, 켈트 족의 영향을 받은 영국 북부문화와 로마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앵글로 색슨족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던 노썸브리아에서 전개되었다. 이미 300년 이전부터 들어온 오래되고 보다 엄격한 켈트 족의 관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비교적 늦게 들어왔던 로마 기독교의 관습을 따를 것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켈트식 기독교에 비해서 늦게 영국에 들어온 로마식 기독교는 점차 영향력과 권력이 확대되던 보편교회를 강조했으며, 보다 효과적인 제도와 운영의 법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

8) 힐다의 밑에서 5명의 주교들이 교육 받았다. 알렌 역시 지혜와 덕의 문제에서 남성과의 상보성을 주장했다. S. P. Allen, *The Concept of Women*, 253-254 참조. 알렌의 상보성에 따른 이해는 호로츠비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254-262).

이런 맥락에서 664년 휘트비 공의회가 열렸다. 윌프리드(Wilfrid)를 앞세운 왕 오스위(Oswy)에 의해 공의회에서는 로마기독교의 관습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로마식 부활절 계산법이 채택되었다. 이는 켈트기독교의 콜롬바보다 로마의 베드로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의미했다. 힐다는 켈트족에 뿌리를 둔 테오도르(Theodore)의 편을 들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켈트 기독교의 관습을 선호했다. 힐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단 로마기독교의 관습이 채택되자 그녀는 로마의 종교법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복종했다.[9] 이는 힐다가 무엇보다 영국기독교의 내적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기독교 역사에서 힐다가 지닌 하나의 공헌은 초기영어(Old English)의 역사에서 유명한 캐드먼(Caedmon)의 재능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캐드먼은 창세기에서 복음서에 이르는 구절들을 운율에 맞추어 제 서술했던 시인이다. 그런데 캐드먼으로 하여금 앵글로 색슨 언어로 된 종교적인 시를 짓도록 배경을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힐다였다. 일생 교육을 강조한 그녀의 관심이 그를 통해 드러날 것일 수도 있다. 라드군트가 포르투나투스에게 영감을 불어 넣었듯이, 힐다는 캐드먼에게 성경의 영적인 뜻을 고찰할 수 있는 영감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드는 힐다를 영국 여인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라 칭했을 것이다.

II-c) 르오바(Leoba)

카롤링거 기독교의 형성기에 아일랜드와 영국의 기독교가 적지 않은 인적자

9) 이후 그녀가 취한 행동을 보면, 힐다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비드의 글보다 최소한 10년이나 빠르게 기록된 『윌프리드의 생애』(*The Life of Wilfrid*)는 힐다가 죽기 1년 전(휘트비 회의 15년 후)에도 힐다가 윌프리드의 퇴위를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힐다가 있던 주교좌의 문제, 휘트비에서의 악감, 그리고 윌프리드의 오만함이 결합된 결과였을 수 있다. 힐다의 후계자인 앨플레드(Aelffled)는 힐다 사후 많은 이들을 중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713년 앨플레드가 죽은 후, 부침을 거듭한 휘트비 수도원은 역사 속에 저물어 갔다.

원과 기독교적 학문을 제공했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힐다의 경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영국기독교는 중세초기 카롤링거 기독교 형성과 독일기독교의 발전에 중요한 전초기지를 제공했다. 르오바가 독일지역에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중세초기 독일 기독교는 보니파키우스(Bonifacius)를 주된 매개로 해서 영국과 로마라는 두 방향에서 도움을 입었다. 그리고 보니파키우스와 함께 영국과 독일 기독교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면서, 8세기 기독교의 독일 정착에 막중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르오바(Leoba)다.

르오바의 생애와 활동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당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인 라바누스 마우루스(Rhabanus Maurus)의 명을 받고 루돌프(Rudolf)가 기록한 『생애』(*Vita*)이다.[10] 비교적 잘 구성된 르오바의 『생애』는 보다 규격화된 성인전이 발전하기 이전의 전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르오바에 대한 풋풋한 자료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이 글의 구도와 문학적 특징, 르오바가 경험해 온 수도원의 교육과 특징, 선교사와 기독교의 역사에서 여성으로서 르오바가 갖는 위치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루돌프가 기록한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서론, 테타에 대한 언급, 르오바의 생애). 서론에서 루돌프는 보다 객관적인 서술을 위해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르오바에 대한 자료를 모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10) 르오바에 대한 당대의 기록은 의외로 별로 없다.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르오바의 편지, 보니파키우스의 기도 요청서, 『보니파키우스의 생애』(*Vita Bonifatti*)에서의 언급과 루돌프(Rudolf)의 『생애』(*Vita*) 등이 있다(3-4). 이중 풀다의 수사 루돌프가 남긴 르오바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학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C. H. Talbot, *The Anglo-Saxon Missionaries in Germany, Being the Lives of SS. Willibrord, Boniface, Leoba and Lebuin together with the Hodoepericon of St. Willibald and a selection from the correspondence of St. Boniface*, 204-226; 르오바의 생애는 페트로프의 책에도 상당부분 들어있다 (Petroff, *Medieval Women's Visionary Literature*, 106-114 참조). 라틴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urius, *De Probatis Sanctorum Historiis* (Cologne: 1574), vol. 5, 396-406.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e, Scriptores*, ed. Waitz (Hanover: 1887), vol. 15, 1, 127-131.

그 다음에 루돌프는 르오바의 스승인 테타(Tetta)의 종교적 활동과 태도를 비롯한 영국수도원의 일면을 그려주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루돌프는 르오바의 출생과 성장, 학습과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 독일로의 이동, 보니파키우스와의 인연, 후반기의 활동과 죽음, 죽음 이후의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생애』를 통해 나타난 르오바의 생애는 크게 영국시절(c.700-748)과 독일 시절(748-780)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 710년 이전에 디노(Dynno)와 에베(Ebbe) 사이에 영국 남서부에서 태어난 르오바는 어린 시절 기본적인 종교적 교육을 영국에서 받았다. 그리고 748년 보니파키우스의 부탁에 따라 르오바를 포함한 30여명의 수녀들이 독일로 건너왔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체계적인 성인전의 형태를 띄고 있지는 않지만, 르오바의 생애는 이미 성인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완벽한 성인전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르오바의 생애에서는 꿈과 기적이라는 두 주제가 흥미롭게 등장한다. 성인전의 발전과 함께 '꿈'의 역할은 '하늘의 비전'으로 발전하고, 기적이야기는 『생애』 구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만큼 공간을 확대해 간다. 이점은 이후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gen)의 작품과 비교해 보아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후의 성인전에서의 경우와는 다른 상태이지만, 꿈과 기적이라는 주제는 르오바의 생애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한다.

르오바의 생애에서 꿈은 중요한 고비고비에 선행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르오바 어머니의 꿈 이야기는 르오바의 사역을 일찍부터 특징 지운다. 그녀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에베는 "즐겁게 울렸던" 교회 종을 손 안에 들고 있는 꿈을 꾼 후 르오바를 갖게 되었다. 원래 이름은 트루트게바(Thrutgeba)였는데, "크게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르오바라고 불렀다. 르오바가 영국에서 독일로 가는 계기도 꿈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입으로부터 주홍색실이 나와서 공을 만들어 가는 꿈' 이야기는 그녀가 이제 독일로 옮겨갈 것을 지시해 주고 또한 정당화해 주었다.

기적의 이야기도 이 문헌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기적은 증오를 풀고 무덤의 높이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든 영국의 테타의 사역에서도 등장한다.

르오바의 경우에서도 잃어버린 열쇠를 물고 온 여우이야기, 간음하여 생긴 아이를 죽인 여인의 음모를 들추어낸 이야기, 거대한 화재를 진압한 이야기가 강화되는 르오바의 영적인 지도력과 함께 등장한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르오바의 사후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 수도원을 돌아다니는 환자들의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는 중요한 문학적인 구성으로 등장한다.

수도원 내부의 종교적인 삶을 잘 그린 르오바의 생애는 수도원 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해 보여주는 자료다. 특히, 르오바가 영국과 독일에서 받거나 행한 교육은 여성 종교인들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르오바 자신은 성경과 교부, 그리고 종교회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르오바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당대 수도원의 교육이 비교적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히 영국 수도원의 경우가 보다 엄격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르오바가 있었던 윔부른의 유명한 이중수도원의 수녀원장 테타(Tetta) 밑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매우 엄격했다. 르오바가 10대 때에 들어온 윔부른 수도원은 "영광스러운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완벽하고 엄격한 수도원이었다. 남녀구역은 명확하게 구별되었고, 남성들은 미사를 집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교라도 해도 여성구역을 들어올 수 없었다. 50여명의 수녀들을 가진 이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잔인한 상급자로 악명 높은 한 여인이 죽었을 때 동료와 후배 수녀들이 보여준 증오는 역설적으로 수도원 내부의 엄격함이 여성들의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철저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엄격한 영국수도원 환경에서 훈련을 받은 르오바가 독일로 들어올 때에 르오바는 어느덧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독일에 발을 디딘 르오바는 성경과 종교적 훈련을 강조했지만, 엄격함보다는 여유와 관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였다. 『생애』는 르오바의 인간적인 모습과 좋은 수녀원장의 모델을 보여준다. 딜렉타(Dilecta)라는 그녀의 애칭이 보여주듯이, 그녀는 접근하기에 편했고, 아름다웠으며, 마음이 온화한 여자였다. 그러면서 보다 강조된 것은 개인적인 삶을 통한 르오바 자신의 모범적 역할(*exemplum*)이었다. 르오바 자신이 모범이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인공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또 하나의 모델을 이미 상정하고 있다. 특히, 르오바의 생애는 르오바의 개인적인 성결성과 모델적인 활동을 강조하였다. 매우 일상적인 형태의 치료 기적은 르오바의 영적인 후원자요 지도자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많은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르오바의 거룩함과 자연스러운 질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보여준다. 그의 삶은 보니파키우스의 동역자와 친구로서 영국인의 대륙선교에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그러면 르오바의 삶과 활동을 중세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여성 르오바는 보니파키우스의 선구자적 독일선교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니파키우스는 남성인 자신이 돌볼 수 없는 선교대상자들을 돌보고, 독일에서 모델적인 종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르오바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출신인 르오바가 구도자로서 보여준 인내, 성경과 교부, 각종 종교 회의들에 대한 정교한 학식은 자신의 친척 보니파키우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르오바의 사역을 귀중하게 여긴 보니파키우스의 관심과 배려는 남성과 여성이 짝을 이루어 종교사역을 이루는 귀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김재현, 「악마로 이끄는 통로」 88-90). 보니파키우스는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서까지, 르오바를 자신의 곁에 묻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르오바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졌다.

둘째, 르오바의 생애는 기독교 선교를 통한 문화교류와 접변이라는 주제를 잘 보여준다. 앵글로색슨 기독교와 아직은 미미한 단계에 지나지 않던 독일기독교의 모습이 르오바와 보니파키우스의 선교사역에 의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생애』는 앵글로 색슨 기독교의 영향(성경을 낭송하며 배우는 전통, 병자나 친척을 방문하는 전통과 예전과 의례 부분, 금식과 기도에 대한 강조와 마리아에 대한 강조)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르오바는 여러 분야에서 독일지역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해 주었다. 물론 이는 힐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럽 기독교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있던 시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더 나아가 선교적인 측면까지 발전한다. 보니파키우스나 르오바는 새로운 지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보니

파키우스는 르오바에게 두 번이나 자신이 선택한 척박한 선교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했다. 위에서 다룬 몇몇 기적 이야기 역시 르오바가 당한 그러한 어려움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르오바 자신의 성결성에 기초한 기도와 (소금을 포함한) 성례전을 사용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해 준다.

셋째, 여성의 경우에도 개인의 성결과 교육정도에 따라 궁정의 일과 같은 일상사에 대한 개입에서부터 남성들에 대한 상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음을 보여준다. 르오바의 경우 풀다를 중심으로 한 남성 지도자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샤를마뉴 왕궁의 '거룩한 아내'인 힐티가르트(Hiltigard)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상담과 사역을 행했다.[11] 르오바를 비롯한 당대 수녀들의 의무와 활동이 남성들의 것과—최소한 보니파키우스 시절의 독일 선교지에서는—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책무를 느끼고,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맡겨진 조직을 운영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르오바는 보니파키우스의 진정한 동반자였고, 둘이 하나보다 아름다운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II-d) 흐로츠비트(Hrotsvit)

에리우제나(Eriugena)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9세기가 저물어 감에 따라 카롤링거 기독교의 전성기도 잠시 암울해져 갔다. 그러나 910년부터 클루니

11) 르오바는 수도원의 행정적 일과 궁정과 관련된 일들로 분주하게 남은 생애를 보냈다. 그녀는 룰(Lull) 지역 남성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상담가와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샤를마뉴의 거룩한 아내인 힐티가르트(Hiltigard)와의 우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르오바는 780년 9월 28일경에 죽었다. 그러나 보니파키우스의 유언과는 달리, 풀다의 수사들은 르오바를 묻기 위해 그의 관을 열지는 않았다. 르오바는 영국 내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시기에 독일로 갔다. 독일에서도 결코 우호적인 여건이 아니었으며, 여성들의 공동체에 비해 남성들의 수도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갔다. 755년 베르(Ver) 회의 이후, 수녀들에 대한 조처가 보다 엄격해 졌다. 수녀들과 수녀원장의 자율권이 보다 약화되었고, 수녀들에 대한 주교의 관리가 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스러움과 신앙적 인격을 무기로 하여, 르오바는 지도력을 확보해 나갔다

(Cluny)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부흥과 개혁의 흐름이 등장했다. 정치적으로 오토 제국은 카롤링거 왕조에 이어 기독교의 또 하나의 강력한 후원자로 등장했다. 9세기 중반이후 카롤링거의 분열과 쇠퇴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카롤링거 기독교의 변방에서부터 오토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는 잠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두오다(Dhuoda)의 『윌리암에게 보내는 교훈서』(*Liber Manualis*)는 카롤링거 여성의 신앙과 자녀교육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세초기 여성의 목소리는 오토제국의 흐로츠비트의 보다 "강력한 목소리"(*clamor validum*) 안에서 잘 들렸다(Wilson 1-15).[12]

흐로츠비트는 중세 초기 가장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긴 여성이다. 흐로츠비트의 생애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그녀의 봉헌 편지와 5편의 산문적 서문들에 들어있다. 930년경 색소니(Soxony) 지역의 고위직의 후손으로 태어난 귀족 출신이라는 것 외에, 그녀의 어린 시절과 조상들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는 10세기 중반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성인전, 연극, 서사시, 짧은 시를 남겼다. 연대기적으로 해서 이들은 성인전, 연극, 역사서의 장르를 다룬 세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8개의 운율을 가진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성인전이다. 서문과 제르베르가 2세(Gerberga II)에 보내는 헌정서를 담은 1권에서 시작하여, 마리아, 그리스도의 승천, 순교자들의 개종과 순교, 동정성을 강조한 아그네스(Agnes)의 순교에 이르는 여덟편의 성인전을 담고 있다.[13] 제 2권은 리듬을 가

12) 흐로츠비트의 이름은 다양하게 등장한다: Roswitha, Htrotvit(주격), Hrotsvithae(변화형). 1838년 그림(Jacob Grimm)의 연구는 "Clamor Validus"에 근거해서 그녀에 대한 설명을 훌륭하게 이룩해 냈다. 물론 이 두 라틴어 단어는 그녀 이름에 대한 해석과 시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는 "강력한 증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Hrotzvit"라는 이름은 "커다란 울부짖음," 혹은 "강력한 울부짖음"을 뜻한다.

13) 페트로프의 책에는 "펠라기우스"(Peglagius)와 "아브라함"(Abraham)이 들어있다 (Petroff, *Medieval Women's Visionary Literature*, 114-135). 가장 잘 보존된 사본은 11세기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The Emmeram-Munich Codex* (clm 14485 1-150)이다. 1501년에 출간되었다. 현재 가장 완벽한 비평본은 다음과 같다. Paul von Winterfeld, *Hrotsvithae Opera* (Berlin: Weidmann, 1965); 또한 다음과 같은 비평본

진 6편의 산문 형식의 연극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로마시대 갈리카누스(Galicanus)에서 시작하여 순교와 타락과 회개를 주제로 한 글들을 담고 있다. 제3권은 역사서로 두 개의 역사적인 서사시를 담고 있다. 현존하는 10세기 작품 중에서 가장 빼어난 『제스타』(*Gesta*)와 『프리모르디아』(*Primordia*)는 그녀가 몸담고 있는 간더스하임의 수도원 역사와 자신의 가족사를 담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흐로츠비트는 성인들의 생애, 기독교 순교자들, 여성 영웅들, 그리고 서사적인 오토제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Wilson 9-15).

이와 같이 방대한 작품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학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균형, 대칭, 대조를 이용한 문학적 기교를 볼 수 있다. 성인전에서는 남성, 연극에서는 여성,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요소 속에서 그녀의 문학적인 능숙함이 살아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규칙적이고 주제적인 구조의 일관성, 균형과 질서는 자신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유기적 구조를 잘 보여준다. 문학적 기교는 흐로츠비트에게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도구가 되어 등장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고찰해 보겠다.

흐로츠비트의 글에서는 종교적 모델의 주제가 바뀌고 있다. 라드군트에서 르오바에 이르는 여성들이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개인적인 성결과 실천을 강조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데 흐로츠비트의 글에서는 그녀 자신의 성결과 그녀가 의도한 메시지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 그녀에게 있어서 보다 객관화된 성인전과 전설 속의 주인공이 연극과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지도자적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14] 르오바와 비교를 해 보아도 흐로츠비트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특히, 모델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행한 성인전과 연극적 기교의 접목은 웃음과 교훈, 그리고 냉소마저 느끼게 한다.

그녀의 작품은 또한 전설과 기적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과 일화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해 준다. 예를 들어, 악과 덕에 대한 그녀

도 있다. Helena Homeyer, *Hrotsvithae Opera* (Munich: Schoninge, 1970).

14)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모델, 예전(liturgy)과의 연관성을 갖는 경우는 13세기 탁발수도회(mendicants)에서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 설명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일화를 통해 등장한다. 이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쉽게 알만한 유명한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맥락에서 취급했다. 그녀의 서사시적 작품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도덕적인 의도들을 명확하게 담아내었다.

수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호로츠비트의 성인전이 호소력 있게 들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녀가 발달시켜온 고전에 대한 이해다. 그녀의 고전에 이해는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뿐만 아니라 서방과 비잔틴 기독교에 대한 이해까지 전제로 한다. 테렌스(Terence)를 닮은 시, 전설, 연극을 만들어낸 그녀의 재능과 작품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연극과 서부유럽의 연극사이에 좋은 가교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그리스 및 비잔틴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에 비잔틴 문화의 유입은 오토(Otto)의 부인인 테오파노(Theophano)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테오파노는 자신의 딸 소피아(Sophia)를 직접 간더스하임에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호로츠비츠의 콘스탄틴 7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며, 호로츠비츠 역시 비잔틴 문화와 종교적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었다.[15]

성인 연극 모델이라는 구도 속에 개종, 순교, 부활, 동정성 등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가 등장한다. 이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호로츠비트가 전제로 삼고 있는 중심 주제 중 하나다. 순교라는 주제 역시 그녀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 "둘키티우스"(Dulcitius)나 "사피엔티아"(Sapientia)에서 볼 수 있듯이, 순교의 원인은 신앙의 보존과 갖가지 유혹으로부터의 동정성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순교와 함께 부활이라는 문학적 주제와 부활신비가 갖는 기독교적인 의미는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동정성에 대한 강조도 담겨져 있다. 당대 남성들의 주장과 동일하게, 여성의 동정성도 크게 강조되었다. 동정성을 강조한 성인전적 본보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교도의 음탕한 행동에 대항하여 청결과 동정

15) 그녀의 작품 중에서 네 개의 성인전(Maria, Ascensio, Theophilus, Basilius)과 네 개의 드라마 (Calimachus, Abraham, Paphnutius, Sapientia)들이 그리스 기원을 담고 있다.

을 강조한 자매들의 지속적인 자기관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동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겁을 먹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다분히 교훈적이고 교육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의 동정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곧 "완벽한 삶"(*vita perfecta*)의 기본원칙이 되었다(Schulenburg 29-72).

그녀는 동시에 여성의 적극적 활동을 상당히 일관성 있게 강조했다. 크리스틴 드 피잔(Christine de Pizan)의 경우에서와 같이, 호로츠비트의 글에서 여성의 입장과 주장이 차지하는 자리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연극과 드라마를 통해 그녀는 중세 여느 여성에 뒤쳐지지 않게 여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도적 대칭구조에서 남성들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다. 호로츠비트의 작품은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여성(연약함, 부패, 유혹)과 남성(귀족, 용맹, 지혜)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고대 작가들과는 달랐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남성중심의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키면서, 여성들을 중심인물로 부각시켰다. 더군다나 수녀원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녀는 초기 중세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 여성들을 소재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장을 문학적인 양태를 통해 전개했다.

문학에 대한 그녀의 걸출한 능력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 것은 그녀가 살아온 수도원이었다. 호로츠비트는 20대 초반에 간더스하임에 위치한 궁정수도원에 합류해서, 물질적 풍요로움과 지적이고 문화적인 탁월성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속해 있던 수도원은 오토의 조상인 리우돌프(Liudolf)와 오다(Oda)에 의해 지어진 궁정 수도원으로 귀족과 왕족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947년에 오토(Otto)는 이 수녀원에 특별권한을 주어, 자체의 법정, 군인, 화폐의 발행, 제국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수도원이 지역 내의 종교적 위계보다는 왕에게 직접 속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위치는 지속되어, 오토의 조카인 제르베르가(Gerberga II, 940-1001)의 수녀원장 재위 때는 이곳이 여전히 학문, 문화적, 종교적인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 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간더스하임은 이미 학교, 병원, 도서관, 정치적인 중심지, 피난처, 순례의 중심지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펠라기우스"에서 보듯이, 그녀가 다룬 사람들이 당대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진 이들을 담고 있었다.

호로츠비트가 종신서원 대신 순결과 청결의 의무만을 강조한 참사회원 위주의 궁정수도원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을 가진 수도원은 학문연구에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호로츠비트의 경우 어린시절부터 스승 리카르디스(Rikkardis)와 제르베르가(Gerberga)로부터 3학과 4학을 공부했다. 이는 그녀의 문학작품을 통해 예술(*artes*)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 여성들은 사본을 복사하고 찬송 책을 복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호로츠비트가 활동한 기간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례 없이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종교와 학문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러면 호로츠비츠의 삶과 생애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 문학과 신앙을 탁월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그녀는 수녀였지만 자신의 종교적 수행을 모범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재구성을 통해 오히려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많은 작품을 통해 탁월한 문제제기에 성공했다. 기독교의 전파와 교육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개종, 타락, 회개, 부활 등의 중요한 주제를 문학적 내러티브 속에서 극대화 시켰다. 그녀의 문학적 기교는 역설적으로 수도원적 이상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호로츠비트가 종신서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여성들과 비교할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녀의 열심이 감소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와 동 서방 기독교적 자료들을 자유롭게 엮어가면서, 그녀는 당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자신이 그 시대에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개종과 회심, 그리고 부활신비에 대한 믿음은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하다. 성인전을 비롯한 그녀의 문헌에서 "솔리-데오 비베레"(*Soli-deo vivere*)를 강조한 운율적이고 수도원적인 이상은 능란하게 담겨져 있다. 자기부인, 개종과 회심, 구원과 확신 같은 수도원적 이상은 그녀의 문헌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수도원적 이상을 그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녀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고전적 인문학적 기교에 능하고, 수도원적 삶에 익숙한

그녀는 성경과 시편에 통달했다.

셋째, 그녀는 중세초기 가장 탁월한 여성중의 하나다. 호로츠비트는 기독교인, 수녀, 여인, 학자, 재능이 뛰어나고 확신에 찬 인물이다. 그녀가 활동한 시기는 카롤링거 시대가 거의 와해되고 교황의 권력이 약화되고, 동시에 봉건주의와 오토 제국이 성장하고 있었다. 신성로마 제국의 꿈과 로마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조화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도되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수도원이 성장하고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학문이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로츠비트 같은 인물을 통해 과거의 지적 유산들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호로츠비트는 당대 학문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간더스하임에서 중세초기 기독교를 가장 밝게 비추어준 여성의 목소리(*vox femina*)를 대변했다.

III.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중세초기 수도원을 배경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네 명의 여성들의 삶과 활동을 고찰해 보았다. 라드군트는 혼란기의 프랑스에 기독교공동체가 뿌리를 내리는 모판 역할을 했다. 힐다는 영국기독교가 중세 로마식 기독교의 한 축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영국기독교를 균형 잡아 주었다. 르오바는 보니파키우스와 함께 영국과 유럽대륙을 이으면서 중세 독일 기독교의 뿌리를 제공해 주었다. 호로츠비트는 수녀원과 문필가의 중세여성의 역할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적지 않은 여성들이 수녀원 담 안이나 집 안에서 피동적 주체로서 침묵만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자신의 작은 침실을 넘어서 유럽 기독교를 울리는 '커다란 목소리'로 확장되었다. 물론 시대를 뛰어넘는 기록을 남긴 여성들은 평범한 배경을 가진 이들은 아니다. 모두가 왕족이나 귀족출신의 여성들이었다. 둘째, 여성들의 활동은 경제적인 활동과 조직의 운영 같은 일상사에서부터

선교와 종교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등장한다. 힐다의 탁월한 행정과 조직의 능력은 필자가 수도원의 지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중수도원에서 여성지도력의 운명이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수도원의 운영과 외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는 여성들의 왕성한 역할을 잘 보여준다. 셋째, 중세초기 여성들의 활동은 기독교의 중심적 사건에 피동적 구경꾼으로서 만이 아니라 남성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여성들의 종교적인 활동과 사상들은 초기중세를 구성해 나간 중심적 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여성들은 중세초기 기독교의 확장과 정립과정에서 남성 지도자들의 반려자 역할을 넘어 필수적인 존재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창세기의 파라다이스가 아담과 이브의 손에 의해 가꾸어졌듯이, 중세초기 기독교도 남성과 여성의 공존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역사와 전승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기독교인의 노력이 집대성된 공동의 유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중세초기 기독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세 중후반기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여성이나 수도원, 수도원 문학의 연구 성과들이 초기 중세의 상황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떠한 연속성과 차이점을 갖는가라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자리매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주제어: 초기중세, 수도원, 라드군트, 힐다, 르오바, 흐로츠비트

인용문헌

[Primary Sources]

Bede. *A History of the English Church and People.* Trans. Leo Sherley-Price. New York: Dorset, 1968.

Dhuoda. *Handbook for William: A Carolingian Woman's Counsel for Her Son.* Trans. C. Neel. Washington, D.C.: Catholic U of America P, 1999.

Larrington, C. *Women and Writing in Medieval Europe: A Sourcebook.* New York: Routledge, 1995.

McNamara, J. A. & J. E. Halborg, trans. *Sainted Women of the Dark Ages.* Durham, NC: Duke UP, 1992.

Talbot, C. H. *The Anglo-Saxon Missionaries in Germany, Being the Lives of SS. Willibrord, Boniface, Leoba and Lebuin together with the Hodoepericon of St. Willibald and a selection from the correspondence of St. Boniface.* London: Sheed and Ward, 1954.

Thiebaux, M., trans. *The Writings of Medieval Women: An Anthology.* New York: Garland, 1994.

Wilson, Katharina. *Hrotsvit of Gandersheim: A Florilegium of Her Works,* Woodbridge, Suffolk: D. S. Brewer, 1998.

[Secondary Sources]

김재현. 「중세여성 신학자들」. 『중세르네상스영문학』 제11권 (2003): 21-41.

김재현. 「"악마로 이끄는 통로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여성연구: 기독교의 기원에서 1500년까지」. 『종교와 문화』 제11호 (2005): 79-103.

Albert, Bat Sheva. *Le pèlerinage à l'époque carolingienne.* Louvain-la-Neuve: Collège Erasme, 1999.

Allen, P. Sister. *The Concept of Women: The Aristotelian Revolution, 750 BC-AD 1250.* Michigan: Eeerdmans, 1985.

Bonnet, Christian. *Les Carolingiens et l'Eglise.* Paris: Ophrys, c1996.

Brown, Peter. *The Cult of the Saints: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Chicago: U of Chicago P, c1981.

_____. *Society and the Holy in Late Antiquity.* London: Faber and Faber, 1982.

Constable, Giles. *Renaissance and Renewal in the Twelfth Century.* Oxford: Clarendon, 1982.

_____. *The Reformation of the Twelf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P, 1996.

_____. *Three Studies in Medieval Religious and Soci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P, 1995.

Eckenstein, Lina. *Women under Monasticism.*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3.

Evans, G. R. *Medieval Theologians.* Oxford: Blackwell, 2001.

Gies, Frances. *Women in the Middle Ages.* New York: Barnes & Noble, 1980.

Heene, Katrien. *The Legacy of Paradise: Marriage, Motherhood, and Woman in Carolingian Edifying Literature.* New York: P. Lang, c1997.

McNamara, Jo Ann. "A Legacy of Miracles: Hagiography and Nunneries in Merovingian Gaul." *Women of the Medieval World.* Ed. J. Kirshner and S. F. Wempe. Oxford: Blackwell, 1985. 36 52.

Stouck, Mary Ann, ed. *Medieval Saints: A Reader.* Peterborough, Ont.: Broadview, c1999.

Peterson, John M., ed. *Handmaids of the Lord.* Kalamazoo, Mich.: Cistercian Publications, 1996.

Petroff, E. A. *Medieval Women's Visionary Literature.* New York: Oxford UP, 1986.

Power, Eileen E. *Medieval Women.* Cambridge: Cambridge UP, 1975.

Rorem, Paul. "The Company of Medieval Women Theologians." *Theology Today* 60 (2003): 82 93.

Schmitt, M. and Linda Kulzer, eds. *Medieval Women Monastics: Wisdom's Wellspring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96.

Schulenburg, Jane T. "The Heroics of Virginity." *Women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Ed. M. B. Rose. Syracuse: Syracuse UP, 1986. 29-72.

Southern, R. W.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London: Penguin, 1970.

Williams, M. and A. Echols. *Between Pit and Pedestal: Women in the Middle Ages*. Princeton: Markus Wiener, 1994.

Women in Early Medieval Christianity: from Radegund to Hrotsvit

Abstract

Jaehyun Ki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ife and works of four women leaders in early medieval Christianity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fostering faith and learning: Radegund (d.587) in France, Hilda (d.680) in England, and Leoba (d.780) and Hrotsvit (d.973) in Germany.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se four example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great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early medieval Christianity; second, those who knew the importance of religious life of individuals and groups; third, those who showed feminine characteristics in their activities and writings. Primarily based upon their own writings, I attempted critically to analyze their works, literary features and skills, and their place within Christian history and thought.

Radegund played a foundational role in the Christian communities taking root in a France beset by chaos in the seventh century. Radegund, wife of King Clothar and abbess of Poitiers, formed a safe and comfortable religious community of women protected from the impending violence and barbarity. Her enduring works made it possible for Christianity eventually set its foundations in French territory, and she also established a bridgehead through which Christianity could spread to the northern Europe. Hilda, abbess of the monastery of Whitby in Northumbria, played a decisive role in adopting Roman Christianity during the turbulent conflicts in Britain between Celtic and Roman Christianity. Her double monastery in Whitby was a good model for how Christians and pagans should live together to many Christians around the world.

Leoba, beloved partner of Bonifacius in shaping the early stage of German Christianity, connected England and European Christianity in her work as a missionary. The *Vita* of Leoba not only shows the daily life of British convents but also the difficult circumstances of the mission field in Germany. As a nun and writer, Hrotsvit raised the level of the female religious for early medieval Christian women. Strongly supported by the Ottonian empire, she left many important writings on saintly legends, plays, and histories.

From this analysis, we can presume that not a few women Christian leaders played important roles in shaping early medieval Christianity. First, women did not keep silent behind the monastic walls as passive witness to Christianity. Their small but strong voices spread over their tiny cells and became *clamor validus* which rang through European society and Christianity. Second, we can find their works and presence not only in the activities of their daily lives,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economic work of their community, but also in crucial missionary works and religious occasions. Hilda's superb administrative works, for instance, drew the attention of her abbot. Even if women leadership in a double monastery was usually limited, their active involvement in managing monastery affairs and handling worldly duties show their important roles. Third, the writings of some women leaders were oftentimes no less important than that of male leaders.

Going beyond the level of collaborator or partner to men, women Christian leaders were essential partners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early medieval Christianity. As Adam and Eve cultivated Paradise in Genesis, the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of men and women led to the shaping of early medieval Christendom. Christian history and tradition are the shared heritage of many Christians including men and women. In this sense,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correctly and recognize the works and contributions of women

Christian leaders. Only at that point will the *mari-stella* in Hrotsvit's *Abraham* shine brightly in the skies and make known the meaning of her renowned name.

Key Words

Medieval women, monastery, convents, Christians, Radegund, Hilda, Leoba, Hrotsvit